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12월 3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6장 3-13절

설교제목 :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레위기 26장에 우리가 살펴볼 초점은 구약의 가나안 땅이 신학적 의미와 가나안 땅이 새 언약의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 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성막을 세우길 원하십니다.(레26:11)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뿐 아니라,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 보신다길 원하십니다.(레26:12)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잃어버린 에덴동산의 꿈을 회복하는 땅입니다. 원래 원형적 에덴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인간과 친교를 나누시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의 신학적 의미는 에덴 동산과 같은 땅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축복들에 관한 말씀입니다.(4-10절) 이러한 복들은 에덴 동산에 주어진 원형적 복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즉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 듯이 이스라엘은 다시금 가나안 땅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포로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의 독려로 제 2성전을 건축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다윗 시절의 국력과 군사력을 회복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다 민족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에서 못 벗어나고, 이후에 더 강하고 잔인한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하에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 부르는 기간 동안에 크게 두 가지 운동이 발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들 모두의 꿈은 동일한데 잃은 땅을 되찾겠다는 일념과 바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지만, 정작 바리새인들이나 열심당원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들이 잃어버린 물리적 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약속의 땅임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이므로 자신을 믿고 따르면 그 땅에 들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는 연결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풍성한 열매는 가나안 땅에 주어진 축복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부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생의 삶이 곧 가나안에 약속된 축복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가나안의 삶, 주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 즉 풍성한 삶과 순종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행해야 합니다.(3절) 가나안의 축복 더 나아가 영생으로 주어지는 풍성함은 이미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느냐 못누리느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된 약속의 땅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시대인 신약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서 있는 곳 모두가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언

약 시대에 가나안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가나안의 개념이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구원 개념으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구약 성경의 땅 개념을 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서 옛 다윗의 영토를 회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것을 꿈을 꾸니다. 이처럼 구약에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실체로 존재했던 가나안 땅은 신약에서 구원론적인 개념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즉 우리의 구원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이 지상의 물리적 땅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물리적인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그 땅에 온전한 에덴을 이루시는 것입니다.(제21:1-2)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결합됨을 말씀합니다.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록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3을 봅시다. 제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서” 어디서 많이 들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1-12절에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21:4입니다. 제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레위기 26장 4-10절에서 살펴본 가나안의 축복이 이제 온전히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완성될 에덴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그 에덴의 완성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레26:13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걸게 하였느니라” .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걷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사명이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나안의 영역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기록한 에덴성전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곧 선교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명을 방해하는 육신의 질병들, 삶의 문제들과 같은 멍에의 빗장을 모두 부수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가나안 땅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새언약의 시대에 가나안 땅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설명해 봅시다.
- 4)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 땅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